

전남학생들 '통일열차' 타고 북한 간다

'2019 열차학교' 서 북한 경유 프로그램 추진 학생 스스로 교육활동 기획...자치형태 운영

청소년 역사교육과 통일의지를 높여주기 위한 전남도교육청의 '2019 전남통일희망 열차학교' (이하 열차학교)가 참가학생 모집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안중근 의사 110주년이 되는 역사적 해를 맞아 역사와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열차학교'의 북한 경유를 성사시켜 2019년을 '통일희망 원년'으로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참가규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고등학생 80명, 교직원 20명 등 총 100명을 선정한다

열차학교는 2015년부터 특성교육활동으로 운영해 온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클럽학교'의 정신과 성과를 계승하지만 학생 스스로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학생통일자치학교 형태로 방식이 개선된다.

교육내용도 역사학교, 통일학교, 민주사

민학교로써 성격을 구현하도록 새롭게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도교육청이 기획(주최)하고 전남학생교육원이 실무를 주관하는 방식으로 공동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여름방학 중 14박 15일 일정으로 추진될 통일희망 대장정은 북한 경유 실현을 위해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회의 등 통일운동 관련 민간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남북교육교류 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도 준비할 계획이다.

중학교 3학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미리 선발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 열차학교 참가 학생에 대한 소속 고등학교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학생들에게 참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기주도 전형(60%),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20% 우선 선발), 특기자 전형(20%)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희망하



전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19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접수가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해 전남도교육청 '열차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활동모습.

는 학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학교 때 선상무지개학교나 도 단위 해외영어 캠프 참가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열차학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자기 주도형 교육활동의 일환인 주제탐구프로그램 계획서를 포함한 참가 신청서류를 오는 3월 18일까지 소속 고등학교를 통해 도교육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주요 선발기준은 ▲(중학교) 각종 행사 참여활동경험 ▲주제탐구활동계획 및 실행 능력 ▲수행의지와 참가동기 ▲인성과 협업 능력 ▲독서토론능력 ▲체력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역사교육과 통일의지를 갖추고 장기간의 열차학교 전 교육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활동할 의지와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많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올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는 오는 3월 22일부터 30일까지 1차 평가(서류평가)와 2차 평가(심층면접합숙 캠프)로 나누어 이뤄지며, 4월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청/자 doul18309@srb.co.kr

조선대 '코빌등 프로젝트' 마무리 대상 'Yellow Please' 팀 수상

조선대 기초교육대(학장 최진규) 비교과 운영센터가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사회적 책무를 배우는 코빌등(Co-Bildung) 프로젝트 최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수상팀은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4팀 등 총 10팀을 선정했다.

코빌등 프로젝트는 조선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비교과운영프로그램이다. 3-5명의 학생들이 직접 사회문제해결 및 봉사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협력적으로 운영하며 활동과정에서의 책무성 등을 평가, 교과목에서 함양하지 못하는 자기주도적 역량, 창의융합적 역량, 배려협동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21팀이 참가한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5주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지난 1월 31일 최종발표회를 가졌다.

대상에는 '산수동 행복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산수동 아동 안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Yellow Please' 팀이 차지했다.

'Yellow Please' 팀은 최근 아동 대상 교통사고 및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떠오르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하도록 산수동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눈으로 위험 요소를 체크해 '산수동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했다.

'Yellow Please' 팀 대표는 그동안 모든 아동 관련 사회문제는 어른들의 시각에서 해결해왔다고 지적하며 아동들이 당면한 안전문제에 관하여 아동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 성인들이 사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주체적인 위험회피를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아동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게임 및 프로젝트 요소를 결합한 아동안전지도 만들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어린이는 "동구정에 들어서 저희가 만든 안전지도 설명해서 좋았어요. 어른들은 저희를 가르치기만 하지 저희 말이 잘 안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고 어른들이 들어주는게 신기했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관계기관에서는 안전지도를 참고하여 시각장애에 불복거울을 설치하고 신호등 설치 검토, 공원 주변 청소년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서상준 교수의
우리말 바꾸기

'귀성'과 '귀향'·'돼'와 '되지'

문안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귀성'이 더 적절한 말이다. '귀성'은 아주 오래 전부터 같은 뜻으로 써 왔던 말이다. '귀향'이 '돌아가는' 하나의 행위라면, '귀성'은 '돌아가다'의 '귀(歸)'와 '부모에게 문안을 드리다'의 '성(省)'이라는 두 개의 행위가 나란히 이어져 굳어진 말이다.

'온정정성(溫淸定省)'은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모시고, 저녁에는 자리를 깔아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을 여쭙는' 부모 모시는 도리를 말한 것인데, 여기의 '성'이 '귀성'의 '성'이다. 성묘의 '성'도 한가지다.

타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오는 것이면 모두 '귀향'이다. 지친 심신을 쉬게 하려고 잠시 고향에 가는 것도, 은퇴 후에 고향에서 살기 위해 돌아가는 것도 모두 '귀향'이다. 명절에 고향에 가는 것도 넓게 말하면 '귀향'이다.

▲ '돼'와 '되지'
올해 기해년(己亥年)을 황금돼지의

해라고 한다. 우리 민속에서 돼지는 다중 상징 동물인데, 긍정적으로는 복과 재물을 상징한다. 돼지꿈을 꾸는 한국인은 금세 부자라든가 될 것처럼 들뜨기도 한다.

그런데 이 돼지해를 맞아 '돼지'를 넣어 익살스럽게 표현한 문구들이 자주 눈에 띈다. '~하면 돼지' 등의 '돼지'가 그것인데, 소리가 비슷한 것을 이용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것일 뿐, '되지'라고 써야 한다. 가구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문체에 광고에 영향 받은 초등생들이 침대를 담으로 썼다는 연전의 우스개가 떠오른다.

'되지'는 '되어/돼, 되어도/돼도, 되었다/됐다'처럼 분말과 준말 둘 다 써도 된다. '되'와 '어'가 줄어 '돼'가 되므로 '되고, 되니, 되면, 되지, 되는, 된다' 등에서는 '돼'로 쓰면 안 된다. '물이) 괴다, (웃어)름을) 보다, (설)을) 쇠다, (비람)을) 쬐다, (나사)를) 죄다, (별)을) 죄다' 등이 같은 유형으로 쓰이는 말이다.

전남대 명예교수·광주시국어진흥위원장

전남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우수'

대학 평균 상회한 83점 얻어
전년도 3등급서 한 단계 상승

전남대가 공공기관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입생 2천 500명 이상 12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평가와 현지점검을 통해 실시한 2018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전년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대 평가점수는 평가대상 대학 평균(77.7점)보다 훨씬 높은 83.4점이다.

이같은 평가는 ▲위로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운영 ▲청렴 자가 진단 시스템 구축 ▲청렴수준 진단·개선을 위한 자체점검도 측정 등의 제도마련에 힘쓴 결과로 풀이된다.

전남대는 앞으로 1등급 달성을 위해 부서별 청렴자율선진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반부패 추진계획수립·이행,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등 미진한 지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병석 총장은 "부패방지 시책 우수기관 선정은 교직원 모두가 함께 반부패·청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에 앞장 선 결과"라며, "이번 평가를 계기로 취약 분야는 더 개선하고, 우수 분야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청렴한 대학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x75 - B형 : 40x75

깨끗한 자연환경을 살리는 파수꾼

유)오케이철거종합건축

오케이철거종합건축은 스테이트/석면철거 전문사가 엄체입니다.
민물과 상수원을 가압이념으로 강력한 뿔뿔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 ▲ 스테이트 석면 철거 전문
- ▲ 공장 / 주택 / 상가 철거
- ▲ 집수리 및 미니포크레인(압쇄기 보유)
- ▲ 인력 상당환경 / 모든 중고 고가매입

H. 010-2595-2116
☎ 062)952-2117, 956-2116
Fax. 062)942-2116

컨테이너 아주컨테이너

- 컨테이너 농가 주택 주문 제작
- 중고 사고 팔고
- 할부 가능

※ 직원구함

아주크레인 www.ajucon.co.kr
☎ 062)955-4100 휴. 010-6648-8990

경희한의의원

불면증 · 우울증
환병 · 공황장애

062) 365-1541
화정동 추신회관 맞은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000620-증-397호

골든경매

- ▶ 부동산 강의 배우실 분
-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투자자 모집
- ▶ 유치권, 지분물건, 토지 별도 등기
- ▶ NPL채권, 법정지상권 대항력 입차인, 가등기

H. 010-8706-0115

http://unisolar21.com

태양광 발전소

발전된 전기를 한전에 매전하여 매월 연금식 소득 발생

- 발전소 부지 매수 · 매도 · 발전소 자금 대출 가능
- 건축물 가중치 1.5 적용
- ▶ 니주 다시 송촌: 100KW 30구좌 분양 사업주 모집
- ▶ 해남 송산: 400KW 개발행위 완료
- ▶ 고흥 도화: 1MG 2구좌
- ▶ 고흥 계명: 1MG 1구좌 / 500KW 1구좌

개발행위 완료, 선로 연내 개통

유니솔라 에너지 H. 010-9340-5519
☎ 062)672-5519

http://shan.lguplusappstore.co.kr

새한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일반이사 · 보관이사

- 부담없이 전화주시면 방문 견적 상담해 드립니다.
- 에어컨, 비데, 정수기 등 무료 분리 서비스
- 커튼, 맥자, 버티컬, 블라인드 등 무료 할부착
- 각종 가구 먼지 제거 등 확실한 마무리 정리정돈

269-2222
080-269-5000

동구 261-8600 서구 364-8600 남구 653-5524
북구 511-8600 완산 941-8524 문인 269-5544

공감하면 상품특독

'카카오톡으로 [사랑방특독]과 친구를 맺고 사진, 시연, 상행시를 올려주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매주 3명을 선정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사랑방 특독 사랑방 사진관 사랑방 행사 매주 3명

Home plus
20,000